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the ‘Quality College Classes’\*

**Sanghoon Im** (Hanyang University)

**Yeong-Mahn You**<sup>†</sup> (Hanyang University)

A variety of activities are being tr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in university education. However, it is not clear what is the definition of good classes, ‘quality college classes’, and how to implement it. The concept of quality college classes focus mainly on a fragmentary definition of the meaning of ‘quality’, a study of the class that the professor or the student is satisfied with, and a prescription approach that is not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class. As the notion of quality college classes is unclear, the way to implement it also remains at the superficial level, depending on the government funding projects of universities. This study conducted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cope with these limitations and to clarify what is a good college class in a true meaning. As a result, quality college classes discourse has changed from ‘class of best teacher’ to ‘innovative class’ and ‘high-scoring class of students’ evaluation’ to ‘deepening and resistance to neoliberal rationality’. As a result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eaning of ‘quality’ is not formed through the fulfillment of absolute standards by the appearance of various subjects in a quality college classes. A quality college classes argue that there is a need for subjective consens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nts and the class environment. In other words, rather than creating a quality college classes based on the position and authority of a specific subject, all members should cooperate and make a meaning of ‘quality’.

*Key words : quality college clas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university education*

---

\* This paper was reconstructed by extracting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sup>†</sup> Correspondence : Yeong-Mahn You, Hanyang University, 010000@hanyang.ac.kr

# 대학에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임 상 훈 (한양대학교)

유 영 만† (한양대학교)

## 〈요 약〉

대학교육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다양한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질 좋은 수업, 즉 ‘좋은 대학수업’이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좋은 대학수업의 개념은 주로 ‘좋은’의 의미에 대한 단편적 정의, 교수나 학생이 만족하는 수업의 특성 규명, 수업 내용과 무관한 처방적 접근 등에 머물러 있다. 대학수업을 구성하는 인적 요인 사이의 관계, 수업 내용과 방법의 연계성, 현장에서 통용되는 실제적 맥락에서 ‘좋은’이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대학수업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보니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 역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좌우되는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좋은 대학수업이란 무엇인지 밝히고자 비판적 담론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좋은 대학수업은 ‘강의 우수 교수의 수업’이란 담론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수업’과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수업’으로 교육에서의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심화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저항으로 ‘소통하는 수업’까지 담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상의 담론분석 결과, 좋은 대학수업 담론은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며 절대적인 기준의 충족을 통해 ‘좋은’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대학수업이란 주체 간의 관계와 수업 환경에 따른 간주관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즉, 특정한 주체의 입장과 권위에 근거하여 좋은 대학수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며 ‘좋은’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좋은 대학수업, 비판적 담론 분석, 대학교육

\* 이 논문은 임상훈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교신저자 : 유영만, 한양대학교, 010000@hanyang.ac.kr

## I. 서론: 대학에서 ‘좋은’ 수업의 의미에 대한 문제제기

대학교육에서 수업은 교수·학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활동이자,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김광현, 조규락, 2016; 한국교육개발원, 2012). 따라서 대학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내실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은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의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신중호, 홍성연, 2013; 유정아, 2009;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국가는 ‘대학교육 특성화사업(CK)’, ‘대학 자율역량 강화사업(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등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서 질 높은 수업, 즉 ‘좋은’ 대학수업이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떤 양태를 가지는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등은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윤소정, 2012; Brophy, 1999). 그것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시대적 관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다양한 차원에서 대학에서 ‘좋은’ 수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보편적으로 좋은 수업이란 어떤 특성과 요인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희원, 강호선, 정연순, 허은녕, 2005; Borich, 2000; Johnson-Farmer & Frenn, 2009; Meyer, 2004; Morgan & Morris, 1999; Ramsden 1991; Zemelman, Daniels & Hyde, 1998), 강의가 우수한 교수로 평가된 교수의 수업에 관한 연구(안지혜, 2014; 이용숙, 2011, Lowman, 1995), 교수 혹은 학생의 의견을 통해 좋은 수업으로 평가를 받은 수업에 대한 연구(박민정, 2008; 윤소정, 2012; 이은화, 김희용, 2008; 이혜범, 양은배 2013; 정은이, 2010; Buskist, Sikorski, Buckley & Saville, 2002; Sheehan, 1999; Zimitat, 2006)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분석 및 종합해보면, 모호하고 맥락적일 수밖에 없는 좋은 수업의 객관적 개념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수업에서 ‘좋은’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좋은’의 의미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반복하거나(이희원, 강호선, 정연순, 허은녕, 2005; Borich, 2000; Morgan & Morris, 1999), 교수나 학생의 입을 빌려 그들을 만족시키는 수업을 정의하는데서 머물렀다(박민정, 2008; 이은화, 김희용, 2008; 이혜범, 양은배 2013; Zimitat, 2006). 이러한 결과는 학습 이론 차원에서 이상적이라고 평가되는 구성주의적 접근과 배치되기도 하며(윤소정, 2012; 이혜범, 양은배 2013; 정은이, 2010), 수업 내용과 무관한 방법적 처방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이용숙, 2011; Lowman, 1995). 또한 수업의 구성원을 교수와 학생 등의 인적 요소로

한정한다(정은이, 2010; Buskist, Sikorski, Buckley & Saville, 2002). 즉, 대학수업을 구성하는 인적 요인 사이의 관계, 수업 내용과 방법의 연계성, 현장에서 통용되는 실제적 의미의 ‘좋은’이란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비판적 담론 분석이란 언어를 이념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과정과 이슈에 대한 언어학적, 기호학적 측면을 분석하는 담론 분석의 한 분야다(Fairclough, 1995/2004). 이것은 Foucault의 주장에 근거하여, 사회의 익숙한 곳에 숨어 있는 담론의 권력 관계, 지배·피지배 관계를 찾아내고 그것과 힘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윤선, 2014). 이러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선행 연구가 가진 한계를 넘어 대학수업에서 ‘좋은’의 의미에 대해 실제적인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수업이란 단순히 교수나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바탕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좋은’ 수업의 논의는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결을 맞추고, 교수·학습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부합한 총체적 시각 아래 개념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재춘, 변효정, 2005; 손승남, 2006). 그래야만 막연하게 ‘교수가 혹은 학생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단편적 논의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 생성의 주체보다는 공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공선희, 2016), 좋은 대학수업과 얽힌 권력 문제를 비판하고, 진정한 의미의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II. ‘좋은’ 대학수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 1. 대학에서 수업의 의미와 질관리, 그리고 ‘좋은’ 수업

대학의 보편적 기능으로 자리 잡은 연구, 교육, 봉사라는 항목은 19세기 독일 대학 전통에서의 연구 공동체, 영국 Oxbridge의 College 중심 개인교수제도, 그리고 19세기 후반 미국 주립대학의 봉사 정신이 조합된 결과다(박의수, 2006). 이중 연구와 교육은 중세 대학 발생과 발전의 전개를 볼 때 대학의 교수에게 요구되는 본질적 기능으로 중요시되었으며(이상오, 2006), 가장 훌륭한 연구자가 곧 가장 훌륭한 교수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왔다(이은화, 김희용, 2008). 이는 교육도 연구처럼 목적과 방향, 그리고 밝히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효

과와 가치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대학에서의 교육은 이러한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미국에서 유래한 수업 개선 및 질관리 전략의 영향 아래 객관적/보편적 측면의 교수법 강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수업 개선 및 질관리의 방법에 앞서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수업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좋은' 수업이란 그것을 정의하는 주체의 주관적 가치가 반영되는 것으로 일관된 객관적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으며, 학습의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좋은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1970년대까지, 국내의 경우 1990년대까지의 수업에 대한 논의는 행동주의의 영향으로 주로 수업의 효과(effectiveness), 학업 성취, 동기, 태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박민정, 2008). 이에 따라 수업이란 교과내용의 전달로써 여겨졌고, 좋은 수업의 개념 역시 어떻게 하면 교과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하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Piaget와 Vygotsky를 비롯하여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기존 교육 이론과 실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수업에 대한 논의가 전통적인 전달(transmission)의 관점이 아니라 구성주의(constructivist) 관점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서경혜, 2004). 이에 따라 좋은 수업의 개념도 학습자 중심,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으로 관점이 이동하였다. 그 결과 대학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한계점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필요로 한다.

## 2.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앞서 개괄적으로 제시된 좋은 대학수업의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좋은 대학수업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했다. '좋은'이란 표현 아래 다소 막연할 수 있는 대학수업의 실제적 특성을 요약화하였다. 둘째, 좋은 대학수업의 구성요소를 밝혔다. 좋은 대학수업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셋째, 앞선 두 가지 의의로 인해 좋은 대학수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수자 혹은 교수학습전문가에게 처방 측면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어떤 것을 보충해야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수업의 맥락에서 '좋은'이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선행연구의 결과만 본다면 '좋은'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듣기 쉬운 혹은 편한', '학습자에게 잘 반응해주는', '재

〈표 1〉 좋은 대학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유형	연구자	주요 특징
보편적으로 좋은 수업이 갖추어야 할 특성	Ramsden(1991)	흥미/설명, 학생 및 학생이 수행하는 학습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학생으로부터 배우기,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 등
	Morgan & Morris(1999)	흥미와 관심, 친절한 설명, 친근한 상호작용,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수업 등
	이희원, 강호선, 정연순, 허은영(2005)	목적지향형, 깊이 있는 전공 지식, 교수-학생 간 풍부한 대화, 지식의 체화 및 응용력 향상, 교수법이 좋은 수업
	Johnson-Farmer & Frenn(2009)	명확한 의사소통, 다양한 수업 전략 활용, 학습자 중심, 학생이 적극적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등
강의우수 교수의 수업	Lowman(1995)	지적 호기심 유발, 효과적 동기 부여, 열의 있는 수업
	이용숙(2011)	체계적 수업 방법, 일상적 사례 제시, 유머 활용, 교수-학생 간 소통, 충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된 수업
	안지혜(2014)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남는 것이 많은 수업, 철저히 준비된 수업, 학습 동기 유발 및 학습지원이 강화된 수업
교수 혹은 학생이 좋다고 평가한 수업	Buskist, Sikorski, Buckley & Saville (2002)	교수의 탁월한 지식과 열정, 잘 준비된 수업, 교수-학생 간 소통, 창의성, 긍정성, 최신 정보 활용, 공정함, 유머 감각, 배려, 열린 수업 등
	Sheehan(1999)	교수의 탁월한 설명, 열정과 친밀감, 유용한 피드백이 제시되는 수업
	이은화, 김회용 (2008)	학습동기 유발, 학습 활동에 직접 참여, 충실한 피드백과 공정성이 있는 수업
	이혜범, 양은배 (2013)	이해하기 쉽게 내용 요약, 교수-학생 간 적극적 소통, 사례 제시, 학습 흥미가 유발되는 수업

미있는'라는 것으로 치환될 수도 있다. 둘째, 수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의 만족도만으로 '좋은'의 의미를 정의하는데 머물렀다. '좋은' 수업이 양질의 수업을 지향한다면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좋은'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부족하다. 셋째, '좋은' 수업과 관련된 인식론적 충돌이다. 1980년대 이후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등장하면서 플립드 러닝, PBL 등의 교수자의 가르침(teaching)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learning)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방법이 활발하게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좋은' 수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감지되지 않고 있다. 넷째, 수업의 내용과 무관한 방법적 처방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좋은 수업이란 그

것이 지니는 구조적 특징과 내재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장상호, 2005), 그것을 찾기 어렵다. 이런 연구는 수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김재춘, 변효중, 2005). 다섯째, 수업의 구성요소가 교수와 학생 등의 인적 요소 중심으로 한정된다. 이는 수업의 질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교수학습전문가나 관련 정부기관, 혹은 다양한 학습 테크놀로지와 교수학습방법 등 물질적/환경적 요인은 거의 다루지 못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한계로 인해 좋은 대학수업의 정의는 새롭게 접근되어야 한다. 수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은 물론 '좋은'을 정의하는 권력 관계 및 상황적 맥락들을 조망하여 그동안 '좋은'의 개념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고, '좋은'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좋은'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으로써 비판적 담론 분석

#### 1. 비판적 담론 분석의 개요

비판적 담론 분석은 Foucault의 담론 철학에 근거하여 담론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언어를 이념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과정과 이슈에 대한 언어학적, 기호학적 측면을 분석하는 담론 분석의 한 분야다(Fairclough, 1985). 비판적 담론 분석이 방법론으로써 주는 함의는 담론의 탐색 단계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며, 익숙하게 보기 보다는 낯설게 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최운선, 2014). 즉,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담론의 실체와 형성 과정을 분석하며 어떤 장치가 지식과 담론을 생산하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신체<sup>1)</sup>는 어떻게 관리 및 규제되는지, 권력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목하게 된다(서덕희, 2006).

비판적 담론 분석은 전복(reversal), 불연속성(discontinuity), 특수성(specificity), 외재성(exteriority)의 단계를 걸쳐 읽으며 비판적 목표의 달성을 진행한다(김희연, 2013). 이후 비판적 목표와 구분되는 기술적(descriptive) 목표를 구성하는 담론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적 실천(textual practice)',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1) 신체란 Foucault가 말하는 권력의 작용점으로서 인간의 '몸(body)'를 말한다. 즉 인간의 몸은 국소적인 사회실체들이 거대한 규모의 권력 체계와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이를 신체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즉, 본 논문에서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권력이 적용되는 대상이자 장소로서 인간의 몸을 신체라 표현하였다.

세 가지 차원의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게 된다(최윤선, 2014; Fairclough, 1995/2004).

## 2. 비판적 담론 분석의 대상 선정

비판적 담론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통상 한 가지 형태의 자료원에 근거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나(김희연, 2013, 서덕희, 2006, 이기호, 2006),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학의 좋은 수업의 담론이 잘 드러나는 자료로써 정부기관 자료,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 발간 자료, 좋은 수업 관련 서적, 그리고 미디어 및 언론보도자료 등 크게 네 가지 종류를 선택했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행, 출간된 자료에 한정했다. 이는 좋은 대학수업 관련 자료를 2017년에서 과거를 향해 역추적하여 수집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내용이 등장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내 수집한 자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교육 관련 정부기관의 발간 자료다. 연구자는 정부기관 리스트를 통해 대학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제작, 대학교육 질 관리 및 평가 등과 관련된 곳이 어디인지 우선 확인하고 1차 자료 검색을 통해 교육부(舊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등 두 개 기관을 선택하였다. 이후 해당 기관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 정보센터를

〈표 2〉 교육 관련 정부기관 발간 자료

기관	발행연도	자료 제목
교육부 (舊 교육과학기술부 포함)	2008년	2007 대학교육 우수사례집: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2010년	2009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사례집
	2013년	2011~2012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사례집
	2014년	2013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사례집
	2015년	2014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사례집
	2016년	2015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우수사례집
	2017년	2016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우수사례집
한국교육개발원	2009년	대학선진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0년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I)
	2012년	좋은 강의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 연구
	2017년	대학평가본부 홈페이지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표 2>과 같이 수집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학 내 기관, 특히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만들어진 자료다. 이곳은 대학 스스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수집 대상 대학의 선택은 지역,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12개 학교를 선택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혹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한 온라인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우선 접근하여 <표 3>와 같이 수집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좋은' 수업에 대한 서적이다. 서적은 대중에게 쉽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서, 대학교육 관계자는 물론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까지 담론을 형성한다. 이에 연구자는 포털사이트의 도서구매사이트에서 키워드는 '교수법', '대학교육', '강의우수', 기간은 199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설정하여 검색했다. 이후 키워드 간 중복되는 책을 걸러내고 총 280 여 권을 추출했다. 검색된 도서 중 대학교육 외의 것은 제외하고 대학 교수 대상 서적, 대학수업에서의 교수법을 다룬 서적 등을 중심으로 다시 분류 작업을 수행하여 <표 4>과 같이 최종 15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미디어 및 언론 보도 자료다. 이러한 자료는 현대사회에서 특정 담론이 형성 및 확장되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서, 비판적 담론 분석의 대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서덕희 2006; 이기호, 2006).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아카이브 시스템인 BIG KINDS(<http://bigkinds.or.kr>)를 활용하였다. BIG KINDS는 199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45개 매체의 약 4천만건의 뉴스 콘텐츠를

<표 3> 대학 내 기관 발간 자료

대학명	지역	유형	수집 자료 내역
A대	수도권	종합   사립	교수법 가이드, 강의우수교수 노하우, 좋은 수업 학생 에세이
B대	수도권	종합   사립	좋은 수업 학생 에세이
C대	수도권	종합   사립	교수법 가이드
D대	수도권	종합   사립	교수법 가이드
E대	수도권	종합   국립	교수법 가이드, 뉴스레터
F대	수도권	종합   사립	좋은 수업 학생 에세이
G대	수도권	여대   사립	교수법 가이드
H대	수도권	종합   사립	교수법 가이드, 좋은 수업 학생 에세이
I대	지방권	종합   사립	좋은 수업 학생 에세이
J대	지방권	종합   국립	좋은 수업 학생 에세이
K대	지방권	교대   국립	좋은 수업 학생 에세이

〈표 4〉 좋은 대학수업 관련 서적

저자명	서적명	출판사	출간연도
서경대	대학 교수를 위한 교수법	국학자료원	1999
권성호	하드웨어는 부드럽게 소프트웨어는 단단하게	양서원	2002
서울대 CTL	가르침에 대한 성찰	박영출판사	2003
나승일	교수법 가이드	서울대출판부	2004
승실대 교무처	교수를 위한 학생들의 수다	두리미디어	2004
Donna W. Tileston	좋은 수업의 실제: 10가지 전략	시그마프레스	2005
Ken Bain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뜨인돌	2005
유명만	당신의 강의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한양대출판부	2005
민혜리	성공적인 대학수업을 위한 교수법 가이드	교육과학사	2008
EBS	최고의 교수	예담	2008
조벽	조벽 교수의 명강의 노하우 · 노와이	해냄	2010
이의용	잘 가르치는 교수	쌤앤파커스	2010
Dave Burgess	무엇이 수업에 몰입하게 하는가	토티	2013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교수 13인의 명강의	학지사	2014
이종호	가르치는 전략과 효과적인 교수법	지식공감	2015

를 빅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199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DB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 ‘대학 강의실’, ‘좋은 수업’, ‘우수 강의’, ‘베스트 티처’ 등을 키워드로 하여 약 15,000건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이후 제목 검토를 통한 적합성 판단, 제목만으로 판정이 어려울 경우 기사를 열람하여 <표 5>와 같이 최종 38건을 선택했다.

### 3. 비판적 담론 분석의 실행

첫 번째, 텍스트적 실천 분석을 위해서 선정된 문서 자료를 모아놓고 좋은 대학수업과 관련된 어휘와 텍스트 구조에 주목하여 읽어나갔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전복, 불연속성, 특수성, 외재성의 단계에 따라 문서 자료를 읽었다. 전복의 과정에서는 좋은 대학수업과 관련하여 대학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행동, 공간 구성 등을 새로운 관점으로 관찰하고 담론이 생성되는 실재를 포착하여 기술하는 것을 시도했다. 불연속성의 과정에서는 좋은 대학수업의 담론과 관련된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일련의 과

〈표 5〉 좋은 대학수업 관련 미디어 및 언론 보도 자료

신문명	보도날짜	제목
한국일보	1992.04.16.	교수강의 평가제(대학을 살리자:8)
국민일보	1992.07.04.	사설: 강의평가제 시도해볼만
한겨레	1993.10.24.	교수강의평가제 급속 확산/한양대 이번 학기부터... 20개 대 도입 추진
한겨레	1994.02.18.	학생들 교수강의평가/건대 전학과 대상 실시
경향신문	1997.05.27.	포항공대 '강의평가제' 이번 학기부터 시행
한국일보	1997.09.03.	베스트 프로페서/서울대 전기공학부 한민구 교수
매일경제	1997.11.12.	"신세대 이렇게 가르쳐라"/미시간대 조벽 교수 논문 화제
국민일보	1998.03.10.	'베스트 티처' 박영준 교수 선정/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생들
국민일보	2000.01.05.	[2000 보통사람들의 소망] (4) 교수님들에게
한겨레	2000.04.27.	교수봉급 학생 손에 달렸다
문화일보	2000.01.31.	교수들 "강의기법 배워야 산다"
한국일보	2000.01.31.	이화여대 '베스트티처' 7명 선정
문화일보	2001.10.23.	'비디오짤 교수' 교단 신흥속도
세계일보	2002.03.08.	서울대공대, 강의 잘하는 교수 우대
매일경제	2002.10.25.	"서울대 교수님들 명강의 배우세요"
경향신문	2002.10.26.	'명강의란 이런 것' 서울대 CD제작
한국일보	2002.10.26.	"교수님들 강의 이 정도는 왜야"/김희준 교수 강의 CD 서울대, 교수에 배포
경향신문	2002.10.29.	<휴먼 인 뉴스> 서울대 '명강의 CD 1호' 김희준 교수
문화일보	2002.11.11.	"강의 질 높여 인재 양성"/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세계일보	2003.11.04.	말 잘하는 교수들 의사소통 "별로" 한양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분석
영남일보	2004.11.04	대구대, 최우수 교수 25명 선정
매일신문	2004.11.04	우수 교수 발굴해 대학 質 높인다
중도일보	2005.06.06.	튀는 강의에 학생 시선고정
국민일보	2006.03.31.	서울대 "교수님, 공부하세요" 연구비 차등지급제 시행
세계일보	2006.04.06.	교수도 "교수법" 이수해야 정년보장
한국경제	2006.07.28.	서강대 "강의 못하는 교수 안식년 안보낸다"

〈표 5〉 좋은 대학수업 관련 미디어 및 언론 보도 자료

(계속)

신문명	보도날짜	제목
한겨레	2006.09.28.	대학 100곳 교육 현주소 보니/콩나물 강의실, 수업은 주입식, 필답평가 일색
경남도민일보	2008.08.27.	“학점이 아니라 인간적 교감이죠”
충청투데이	2009.01.21.	교수가 교수에게 배운다
한국일보	2009.03.24.	부산 대학가 강의 업그레이드
한국경제	2009.09.19.	(강의)평가 낮은 교수 학기 중에 탈락시켜
한국일보	2009.07.23.	교수들 ‘강의 방법 치료받기’ 호서대 순천향대 복직
부산일보	2010.02.25.	순천향대, 학생들 수업평가 점수 반영 우수교원 선정
세계일보	2010.03.18.	강의도 비유·농담 섞어야 제 맛!
한국일보	2011.04.15.	[질문이 사라진 교실] 듣고 적기만... 대학은 침묵 전당, 수제도 해외로 가니 토론 둔재
국제신문	2010.05.10.	영산대 베스트 티처 시상
파이낸셜뉴스	2014.03.20.	건국대, 강의평가 우수 베스트 티처 시상

정에서 단절된 틈을 찾아내었다. 이를 통해 좋은 대학수업의 담론 형성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의 포착을 시도했다. 특수성의 과정에서는 현재 좋은 대학수업의 담론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을 거부하고, 연구자 자신이 갖고 있는 관련된 개념, 아이디어 등을 끊임없이 낮설게 바라보는 시도를 하였다. 넷째, 외재성의 과정에서는 좋은 대학수업 담론에 관해 수업 내적 요인과 수업 외적 요인을 나누지 않고, 담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우연적으로 발생한 외부 조건과 사건을 짚어보았다. 각 문서 자료를 읽으며 좋은 대학수업 담론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용어 및 개념 그리고 이론적 논거를 분석하였다. 특히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 형성의 주체, 그리고 그것이 형성된 시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어가며 이러한 부분을 추출하는데 집중하였다. 그 결과 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고, 담론의 발생이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주체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담론적 실천 분석을 위해서는 비판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의 달성을 매개하는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확인하였다. 텍스트라는 미시적 차원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거시적 차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실천으로서 좋은 대학수업 텍스트가 생산, 분배, 소비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인습의 고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이 내면화한 사회 구조, 인습,

규범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담론적 실천 분석 결과는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도출된 내용(담론)'은 무엇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표현되는지(스타일)', 세 번째는 '표현된 결과의 성격(장르)'는 어떠한지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사회적 실천 분석을 위해서는 담론적 실천을 통해 분석된 텍스트가 현존하는 헤게모니를 어떤 식으로 재구조화하는지 관찰하였다. 담론적 실천이 각종 이데올로기의 서로 다른 요소와 어떻게 집합, 탈집합, 재집합하여 상식을 만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좋은 대학수업이 상식으로 구성되면서 집합된 이데올로기의 신체와 재집합 되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좋은 대학수업 담론이 어떠한 사회적 요인과 관련성을 갖고 형성 및 확산되고 있는지 주목하는 것이며, 담론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도출된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과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의 삼각검증, 동료 연구자 검증, 그리고 전문가 검토 등을 시행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으로 활용하는 자료를 특정한 종류로 한정하지 않고 정책자료, 대학 발간 자료, 서적, 신문기사 등 다양화했다. 전문가 검증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박사 3인의 전문가 검증, 동료 연구자 6명을 통한 상호 검증을 거쳤다. 전문가 3명은 전원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자 대학교육 현장 근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연구자가 선정한 문헌자료, 추출된 담론의 형성 및 확산의 요소에 대한 내용을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담론 분석의 경로를 추적하고, 근거로 제시한 내용의 정당성을 포착하였다. 즉, 도출된 담론의 주제를 왜 그렇게 선정하였는지 묻고, 그 근거와 담론의 추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논문을 통해 응축된 결과가 타당한 논리적 추론을 거쳤는지를 성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담론과 관련된 자신들의 체험 사례들을 제시하며 추출된 담론의 의미와 대표성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담아내었는지 확인하였다. 상호 검증에 참여한 동료 연구자들은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박사과정생들로 구성하였으며, 비판적 담론 분석의 각 실천 영역별 내용이 비판적 담론 분석의 방법론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검증하였다.

#### IV. 좋은 대학수업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 크게 3단계에 걸쳐 증첩된 변화가 있

있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는 1990년대 후반, 담론 형성 초기로 좋은 수업이란 곧 강의 우수 교수의 수업, 2단계는 2000년대 들어 좋은 수업이란 곧 혁신적인 수업 그리고 강의 평가 점수가 높은 교수의 수업, 3단계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수업은 곧 서비스라

〈표 6〉 좋은 대학수업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 요약

담론 형성 과정	담론 분석의 수준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강의우수 교수의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론: 구태의연한 대학수업에 관련 비판, 강의 잘 하는 교수의 수업</li> <li>· 스타일: 전문가 혹은 관찰자</li> <li>· 장르: 정보 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교육 경쟁력 확보에 대한 관심 증가</li> <li>· 교수의 권위주의적인 수업 방식에 대한 비판과 그 견제로서 학생의 수업 권을 강화하는 분위기 형성</li> </ul>
혁신적인 수업 혹은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수업으로 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휘들 간의 의미론적 대조</li> <li>· 활용된 위상어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론: 교수법의 혁신 기반의 ‘혁신적인 수업’ 對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수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담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분화</li> <li>· 스타일: 전문가, 관찰자, 경험자, 동료 교수, 정부 기관 관계자</li> <li>· 장르: 수기, 정보 전달, 사설, 정책자료집 등 활용. 처방과 성찰의 혼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관인, 교수학습 전문가가 새로운 담론 형성의 권력 주체로 등장</li> <li>· 재정지원사업 기준에 맞춘 강요된 혁신의 지향으로 교수학습전문가가 담론 형성에 영향력 증가</li> <li>· 질관리 도구로서 강의평가의 입지가 확고해져 학생이 좋은 수업을 좌우하는 권력 핵심으로 부상</li> </ul>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심화와 소통의 중요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론: 취업률 높은 수업, 학점 잘 주는 수업 등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심화와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소통하는 수업 강조</li> <li>· 스타일: 전문가, 경험자, 관찰자 등</li> <li>· 장르: 수기, 정보 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을 학습자가 아닌 고객으로 정의</li> <li>· 학문 고유의 논리가 아닌 효율을 중심으로 한 비용-효과 논리로 대학수업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임</li> <li>· 대학수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담론 형성 주체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좋은 수업 담론의 합의 추구</li> </ul>

는 인식이 확산되며 좋은 수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심화와 저항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3단계의 변화는 이전 단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단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가 유지되면서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더 강력한 담론이 등장하여 각 담론이 병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담론 분석의 수준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 1단계: 강의 우수 교수의 수업

담론 형성 초기에는 기존 대학수업의 현실을 비판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제시하는 형태로 담론이 만들어졌다. 기존 대학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최초의 기사는 1997년 11월 12일 매일경제신문, 『“신세대 이렇게 가르쳐라”/미 미시간대 조벽 교수 논문 화제』였다. 이 기사는 당시 대학 수업은 ‘좋은’을 추구하기에 앞서 수업으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파행적 상태였음을 잘 드러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교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0년 가까이 된 낡은 강의자료와 예기치 않는 휴강, 결혼주례 등이었다. 과거 학생들이 인정하는 인기 있는 교수의 자질은 학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제공해주는 편의(?)와 졸업 후 근사한 주례사 정도였다.

(매일경제, 1997.11.12.)

텍스트적 실천 차원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론적 관계를 분석해보면, 우선 ‘낡은 강의자료’, ‘예기치 않은 휴강’, ‘결혼 주례’ 등의 단어를 통해 수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구태의연한 교수의 모습이 단적으로 표상된다. 구태의연한 수업자료, 규정된 시수와 무관한 수업 시간, 주례사만도 못한 질 낮은 수업 내용은 당시 대학 수업 상황을 그대로 노출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도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제공해주는 편의(?)’, ‘근사한 주례사’ 등 수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만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제공해주는 편의’란 말은 언뜻 보면 좋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결국 휴강을 많이 하는 교수에 대한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대학 교수가 수업에서 가진 권한이 너무 컸으며, 자신의 권위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기사 외에도 2000년 1월 5일 국민일보, 『[2000 보통사람들의 소망] (4) 교수님들에게』, A대 자료: 2014년 베스트 티처 노하우 연구 등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수업에 대한 파행적 모습의 담론이 형성된

원인으로 교수에게 강력한 권위가 집중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결국 교수일 수 있다. 이에 좋은 대학수업의 담론은 교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강의 우수 교수의 수업’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좋은 대학수업 담론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대학에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대학수업에 대한 비판’과 ‘강의를 잘하는 교수란 어떤 사람인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담론을 양산하는 자료의 저자(스타일)는 주로 전문가 혹은 제3의 관찰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주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장르를 띠고 있었다.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이러한 담론의 형성은 대학교육 경쟁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업의 질관리가 강화된 측면을 지목할 수 있다. 이에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서 교수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는 수업, 학생은 그저 수동적 입장일 수밖에 없는 수업이 부각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을 대표하는 담론이 되었다. 이처럼 교수의 역할과 태도가 중요하다보니 좋은 수업 담론은 강의 우수 교수가 누구인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질 뿐 수업 그 자체의 특성은 부각되지 못했다는 특징도 보인다. 좋은 대학수업 담론을 다룬 자료에는 그 수업을 한 교수가 ‘누가’인지, ‘소속 학과’가 어디인지만 드러난다. 교과와 내용적 특징은 찾을 수 없으며 교수 자체 혹은 교수법만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 2단계: 혁신적인 수업 혹은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수업으로의 분화

좋은 대학수업 담론은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주체가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 관련 정부기관, 학생,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수업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교수의 권위를 견제하고,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한다. 강의 우수 교수의 수업이 곧 좋은 수업이라는 기존 담론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담론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2단계에서는 단일 담론이 아니라 ‘혁신적인 수업’,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수업’ 등 두 가지로 분화되어 형성된다.

첫 번째로 ‘혁신적인 수업’ 담론이다. 대표적 사례로 2005년 교육부(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펴낸 정책연구에 고지된 당시의 평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3. 정성평가 평가요소별 평가기준

4) 교육여건 개선 : 총 5점

- 강의평가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정도를 고려하여 5점 척도로 평가 (총 5점) : 1. 2. 3. 4. 5

(교육인적자원부, 2005, p.6)

텍스트적 실천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개선', '개편',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수업의 내용적·방법적 혁신을 요구하는 항목이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담론은 텍스트적 실천보다 담론적 실천 차원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수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부기관이 스타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대학수업 관련 서적도, 대부분 교수법을 통한 혁신적 수업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드웨어는 부드럽게 소프트웨어는 단단하게』, 『가르침에 대한 성찰』, 『교수법 가이드』, 『교수를 위한 학생들의 수다』 등 대학에서 교수법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서적들을 보면, 역시나 교수법 개선을 통한 수업 혁신을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은 좋은 대학수업 담론 형성에 있어서 '혁신적인 수업'이라는 일치된 담론을 각기 다른 장르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자료는 수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대학 혹은 대학 교수학습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정부기관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개발센터 발간 자료 및 좋은 수업 관련 서적은 강의를 하는 교수를 직접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독자가 담론을 형성하는 텍스트에 접촉하며, 텍스트가 주도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권력 관계에 따른 것을 종용받는다. 이러한 담론은 교수를 직접 대상으로 한 장르를 구축하기 보다는 대학 경영 관계자 혹은 대학의 교수학습전문가를 대상으로 담론의 장르를 형성하며, 특히 교수학습개발센터라는 조직을 통해 극대화된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교수를 대상으로 장르를 형성하며, 좋은 수업 담론의 확산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주목할 것도 역시 새로운 권력 주체의 등장이다.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 관련 정부기관은 대학 교육의 질 관리라는 명목으로 하에 대학인증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 등을 강화하면서 우수한 대학교육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했다. 대학 특성화 정책 재정지원사업 평가, 대학교육협회의 대학종합평가 및 대학기관평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은 교수학습지원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었으며(김희배, 2004; 염민호, 김덕훈, 박현호, 김현정, 2008), 대학의 교육 역량만을 평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도 등장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대학 외부 기관이 대학 내부의 교육 전반 및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수업 담론의 주체가 된다.

두 번째로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수업’ 담론이다. 이러한 담론은 학생을 주체로 형성되었다. 강의평가는 수업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자로 학생을 상정한 것이며, 수업 내에서 교수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 견제를 시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이전의 다른 담론 형성 방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텍스트적 실천 차원에서 강의평가가 좋은 대학수업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도입 초창기에는 부정적 시각도 많았다. 강의평가가 언론에 처음 보도된 1992년 4월 16일, 한국일보 『교수강의 평가제(대학을 살리자:8)』는 당시 교수 사회가 강의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낸다. 그것은 교수에 대한 ‘도전’이며, 교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정의하며 ‘격분’한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의 사례를 가져와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업해도 강의평가는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농담’과 ‘야한 잡담’을 섞어서 수업을 하면 강의평가에서 ‘톱(top)’이 될 수 있다고 비꼰다. 하지만 기사의 말미에는 장르를 변경한다. 대학 교수평의회 의장이 입을 빌려 강의평가는 대학을 ‘살리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권고한다. 당시 대학수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의평가를 수용해야 한다고 권위에 기대 제시한 것이다.

강의평가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였는지 담론적 실천 차원을 분석해도 알 수 있다. 통상 좋은 수업 담론과 관련된 보도 내용의 경우 특정한 사건에 대한 단순 전달의 경우가 많았으나 강의평가에 대해서는 사설도 등장한 것이다. 1992년 7월 4일,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강의평가제 시도해볼만』이란 내용을 다룬다. 강의평가는 대학의 ‘뼈아픈 자기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대학이 대학답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며 변화를 촉구한다. 즉, 당시 대학은 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혁신적 시도를 요구 받았다. 대학의 혁신은 곧 수업의 혁신이었으며, 수업의 혁신은 곧 교수의 혁신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학의 경영자는 정책을 움직였다. 교수의 의견과 무관하게 수업의 질 관리라는 명분으로 강의평가는 각 대학에 보편화되었다.

강의평가를 바탕으로 한 좋은 대학수업 담론의 확산에도 각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었다.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강의평가를 잘 받는 수업 혹은 교수의 특성을 공론화 하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우선 텍스트적 실천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강의평가 점수를 잘못 받은 수업의 교수를 ‘환자’에 비유하며, 부족한 교수법을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의 교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 컨

선틱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의 명명할 때 클리닉(clinic)이라고 표현하거나, '치료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상은 2009년 7월 23일 한국일보 『교수들 '강의 방법 치료받기'... 호서대 순천향대 부적』와 같은 기사에서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통상 티칭 클리닉에 참여하는 환자는 강의평가 점수가 나쁜 교수이며, 의사는 강의평가 결과가 좋은 교수 혹은 교수학습전문가가 된다. 강의평가 점수가 학생의 수업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가르침에 장애(?)가 있는 환자를 진단하는 도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이러한 형태의 담론을 확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좋은 수업 에세이 공모전'이다. 이는 정량적인 강의평가 결과만으로는 구체화되지 못하는 추상적인 요인을 질적으로 표상해낸다. 일례로 F대학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에세이』란 공모전을 진행했다. 수상작은 인쇄물로 제작되어 배포되는데, 맨 상단에 해당 교과목 이름을 적고, 해당 수업에 대한 내용을 에세이로 작성하는 형태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두드러지는 것은 수업 자체가 아니라 교수에 대한 학생의 평가다.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주목할 점도 역시 학생이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수업은 학생을 존중하며 편안하게 해주는 수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학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교수의 권위가 여전히 막강한 상황에서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려면 교수는 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학생이 처한 상황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조벽 교수의 명강의 노하우 & 노와이』라는 서적은 좋은 수업을 위해 교수에게 필요한 핵심요소로 '학생을 위한 배려'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 '흥미 유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함' 등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교수가 수업의 주체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얻게 되는 것들이다. 여기서 교수는 가르치는 스승이라기보다는 학생이 등록금을 지불하고 획득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 즉, 좋은 수업 담론과 신자유주의적 교육관 사이의 관련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 3단계: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심화와 소통의 중요성 부각

좋은 대학수업 담론의 형성에 등장하는 '우수', '선발', '혁신', '학생 중심' 등의 키워드는 '경쟁', '자유', '수월성', '책임성', '수요자 중심' 등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sup>2)</sup>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 이는 교육에서도 경영 마인드가 강조되며, 시장의

도구적 원리인 경쟁의 효율성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에 교수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넘어 정부기관, 교수학습전문가 등의 외부 주체가 개입하게 되는 배경에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포진되어 있다. 2009년 숭실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강의평가에 주관식 답변을 모아 제작한 『교수를 위한 학생들의 수다』라는 서적의 서문은 텍스트적 실천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략) 첫째, 강의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더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중략) 학생들의 의견은 교수 · 강사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교수를 위한 학생들의 수다, pp.4-7)

학생이 곧 수업의 평가자이고, 학생의 요구에 맞추지 못한 수업은 개선이 필요한 수업으로 표상된다. ‘수요자 중심’, ‘학생들의 만족감’이란 표현은 학생을 가르쳐서 일케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교수가 제공하는 수업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비추어진다. 더 나아가 학생의 의견이 교수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은 기존의 대학수업 내부의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의 틀을 역전시킨다. 교수에게 수업의 주도권을 빼앗고, 그것을 학생에게 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교수가 을(乙)이 되고 학생이 갑(甲)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의 목차를 보면 교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을 질타하며, 학생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수업의 교수를 높게 평가한다. 다른 예로 2010년 출간된 『잘 가르치는 교수』라는 서적은 대학 겸임교수인 저자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한 책으로 교육에서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대학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하며, 교수는 학생이 ‘수업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은 대학수업을 완벽한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는 서비스 제공자이며, 학생은 구매자이자 고객인 것이다.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스타일은 동료 교수를 등장시킨다. 친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동료 교수 입장을 통해 수업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함을 주장한다. 저자는 학생을

2)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란 1995년 5.31개혁안 발표 이후 대중적으로 활용된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관련된 것으로(채수은, 손영민, 2015), 교육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강조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시도한 교육정책을 말한다(강창동, 2012).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좋은 수업임을 분명하게 표상한다. 학생을 고객으로 모시고 그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수업을 우수한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평가받는 '행위'의 모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기보다는 '고객' 중심의 '모객(募客)'이 잘 되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수업은 그것의 평가를 학생의 취업까지도 확산시킨다. 다음은 H대 명강의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의 내용 중 일부이다.

개인적으로는 취업준비를 하며 이 수업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운 내용들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H대 자료: 2013년 명강의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p.60)

이 학생의 글을 텍스트적 실천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수업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었고 결국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기에 좋았다고 소개한다. 좋은 수업이란 수업 내적 요소에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수업 외적 부분까지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좋은 수업 담론이 곧 좋은 대학 담론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대학수업 담론으로서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심화는 한편으로는 '좋은'의 의미에 부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의 의미와 상충되는 이중성을 보인다. 시장경제의 경쟁력은 저비용, 고효율의 추구인데, 이것이 수업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9월 28일 한겨레 『대학 100곳 교육 현주소 보니 / 콩나물 강의실, 수업은 주입식, 필답평가 일색』이란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2학년인 박아무개(20)씨는 이번 학기에 모두 여섯 과목을 수강한다. 경제학 강의는 100명 정도, 다른 교양 세 과목은 80명 정도가 한꺼번에 강의를 듣는다. 전공 두 과목은 형편이 나은 편이어서 40~50명 정도 수강한다. 박씨는 “수업은 대부분 토론보다는 강의식으로 이뤄지고, 리포트를 내긴 하지만 교수가 내용을 읽어보고 의견을 주거나 토론을 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1학년 때 강의평가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강의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중략) 최재성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대학이 교수를 확보하고, 강의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 투자를 늘리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대학이 등록금이라도 최우선으로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6.09.28.)

이 기사는 담론적 실천 측면에서 두 가지 장르가 혼합된 진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초반에는 일반적 독자를 대상으로 대학수업 현장을 학생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부각시키며, 누가 봐도 지금 대학수업이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 대학에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정책이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학은 비즈니스 차원의 경쟁력을 가졌는지 모르나 수업의 질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곤 마지막 부분에는 국회의원 인터뷰를 통해 대학 경영자에게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촉구한다. 대학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교육(수업)에 투자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대학은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 수업 개수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강의실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교수를 더 적게 채용해도 된다. 그 결과 1개 수업의 규모는 점점 커져 ‘콩나물 강의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대학수업 담론에서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만든 모순이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심화는 좋은 대학수업 담론의 중요한 축 중 하나인 ‘혁신적인 수업’과도 상충될 수 있다. 학생이 많으면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중심, 학습자 참여 활동 등은 진행하기 어렵다.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위 효율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업을 하려면 표준화 · 규격화된 교수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적인 수업 담론은 사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이 불러오는 상충적 상황을 돌파하고자 새로운 저항적 담론이 등장한다. 교육의 성과라는 것조차 학생의 만족도로 대치되는 상황, 비즈니스 마인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학수업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비판적 접근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8월 27일, 경남도민일보 『“학점이 아니라 인간적 교감이죠”』, 2011년 4월 15일, 한국일보 『[질문이 사라진 교실] 듣고 적기만... 대학은 침묵 전당, 수제도 해외로 가니 토론 든재』 등은 텍스트적 실천 및 담론적 실천 등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몰든 대학 수업의 현장을 잘 표상하고, 대학에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그 결과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좋은 대학수업이란 소통 중심의 수업,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는 수업임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담론 형성 주체 간의 소통을 강조하게 된다. 즉, 좋은 대학수업 담론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상 좋은 대학수업 담론의 변화를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복기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처음 담론이 형성되던 시점에서는 대학수업이란 ‘넓은 강의자료’, ‘예고 없는 휴강’ 등이 주요 키워드였다. 그런데 10여년 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대학수업을 상징하는 표현은 '취업 양성소'가 되었다. 강의평가는 '인기투표', '학점 잘 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 되었다고 진술한다. 아울러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일어났으며,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의 스펙 중심 인재 선호가 대학수업의 질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평가로 인해 쉬운 수업, 학점 잘 주는 수업이 대세가 되었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해답은 소통하는 수업, 토론과 질의/응답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제시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회의적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장에 내재된 의미론적 관계를 분석해보면 우선 대학수업이 '교수에 의한 지식의 전달'이라는 기본적 전제는 유지한 채 소통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강의를 하되 서있지 말고 돌아다니고, 내용 전달 자체 보다는 학생의 참여가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많이 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 소통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좋은 대학수업과 관련한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대학수업이란 무엇인지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밝혔다. 대학에서 '좋은' 수업의 담론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연구 방법의 특성 상 연구자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구자료의 경우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한정되며, 분석의 과정은 연구자의 통찰에 의존한다. 이에 연구자는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심층적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담론 및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더불어 전문가 검증, 상호 동료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연구자의 주관적 시각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 결과, 좋은 대학수업 담론은 그것을 형성 및 확산하는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고, 이전 주체의 역할과 위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 우수 교수의 수업의 경우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구태의연한 대학수업 관련 담론을 비판하며, 새로운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의미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이것을 대학교육의 경쟁력이란 키워드와 연결하여 최초의 좋은 대학수업 담론을 형성하였다. 다만 이러한 담론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등장한 것이 교수법을 혁신하는 혁신적 수업, 그리고 학생에 의해 강의의 질을 평가하는 강의평가제도다.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담론에 힘

을 실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여 좋은 대학수업을 논의하게 되며, 특히 정부 기관 혹은 교수학습전문가가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주체로 떠오른다. 그 결과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강의평가와 교육의 혁신 수준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나 지표로서 그 입지가 확고해지며, 학생이 학습자가 아닌 고객으로서 인식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좋은 대학수업 담론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좋은’의 의미는 수업의 통상적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취업률 높은 수업, 학점 잘 주는 수업 등 수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수업들이 좋은 대학수업으로 등장한다. 이는 결국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수업을 학문의 논리가 아닌 효율 중심의 비용-효과 논리로 재편해버린다. 이러한 변화는 좋은 대학수업 담론에 대해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들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합의를 통해 ‘좋은’의 의미를 만들어가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좋은 대학수업이란 단순히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활동으로 설명될 수 없었으며 다양한 관계자들이 얽혀 수업의 내용적, 방법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였다.

좋은 대학수업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담론 분석의 수준에 따라 담론적 실천 및 사회적 실천 차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좋은 대학수업은 다양한 주체를 고려해야 하며, 그들 간의 간주관적 소통에 의해 ‘좋은’의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좋은 대학수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교수 혹은 학생이라는 특정 주체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렴하는 형태였다(이은화, 김회용, 2008; 이혜범, 양은배, 2013; Buskist, Sikorski, Buckley & Saville, 2002; Sheehan, 1999). 그러나 좋은 대학수업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 좋은 대학수업이란 교수학습전문가, 정부기관인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여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좋은’의 의미 역시 여러 관계자의 생각과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강의평가 점수라는 학생 입장 중심의 척도로서 ‘좋은’의 의미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좋은 대학수업에서 ‘좋은’의 의미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좋은’의 의미에 대한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담론적 실천 차원에서 좋은 대학수업의 구현 및 설계는 좋은 수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어야 한다.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 좋은 대학수업이란 특정한 교수학습 이론 및 기술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학습,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벌어지는 이슈들, 대학교육 관련 정부 정책과 대학 경영 차원의 제한점 등을 포괄한 종합적 결과물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교육공학 분야에서 대학 수업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PBL(류수영, 2013; 양영선, 허

회옥, 2018), 플립드러닝/블렌디드러닝/이러닝(강지혜, 이지연, 2018; 김윤영, 정현미, 2017; 임정훈, 2016), 수업컨설팅(이은택, 심규진, 유영만, 2017; 장선영, 2017) 등 주로 수업설계방법론(ISD) 측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수업의 현장에서 수업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좋은'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계된 모든 인적, 물적, 환경적, 정책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좋은 대학수업은 '경쟁적' 혁신이 아닌 '본질적' 개선을 지향해야 한다.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 정부기관이 제시하는 좋은 대학수업 담론의 가장 큰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대학 경영의 자율화라는 명분하에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주관하면서 각 대학 간의 경쟁을 붙여 수업의 혁신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은 수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여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각종 새로운 기술이 대학교육에 도입할 때도 이것이 학습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충분한 고민 없이 기술적인 '새로움'만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임상훈, 강수민, 이신우, 유영만, 2016). 혁신을 위한 혁신의 결과, 수업에는 혁신적인 기술은 적용되었으나 정작 학습은 변하지 않은 기형적 수업만이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공학은 그동안 한국 대학교육 혁신, 특히 교수법 변혁과 질관리 측면에서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송상호, 이지현, 박태정, 2016). 이제는 더 나아가 혁신으로 얻어진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습의 본질적 측면에서 좋은 대학수업이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학생을 '고객'이 아닌 '학습자'로서 인식해야 한다. 비판적 담론 분석 결과, 대학수업에서 학생은 학습자라고 하기 보다는 고객에 가까웠다. 좋은 대학수업이란 '고객이 만족하는 수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 배경에는 시장경제중심의 대학경영 시스템이 있다. 대학의 기능을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행정'이 아니라 '고객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학습서비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김용식, 2006). 자연스럽게 수업에서도 학생이라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을 고객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좋은 대학수업 담론은 오로지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즉, 교수가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업 내용과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학생이 요구하는 수준에 휘둘리기 쉽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길들여진 학생은 자신을 주체적인 학습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입장에서 '수업 구경꾼'으로 전략이 우려된다. 따라서 좋은 대학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학생을 배려하는 수업의 특성을 가지되,

학생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학습자로서 상정해야 한다. 여기서 학습자란 일방적으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수동적 입장에서 보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 능동적 학습자이자, 수업의 내용 구성에 참여하는 또 다른 의미의 교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좋은 대학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수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수업을 교수와 학생 사이의 사건(event),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활동, 지식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장 논리로 바라볼 경우 좋은 대학수업의 의미는 교수학습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대학수업이란 교수와 학생은 물론 교수학습전문가와 정부기관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그들 사이의 주관적 견해들이 집결되어 더 나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의 ‘좋은’의 의미를 추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모든 관계자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 존중받아야 하며, 지식의 탐구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좋은 대학수업을 구현해갈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좋은 대학수업은 단순히 하나의 단위로서 수업을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관계론적 입장에서 ‘좋은’의 의미를 조망해야 함을 제안한다. 즉,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접근으로서 좋은 대학수업을 구현하는 처방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요인과 자원, 그리고 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생태학에 주목한다. 지식생태학은 그것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일터)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건강한 지식과 즐거운 학습을 바탕으로 보람찬 성과를 추구하는 학문적 접근이다(유명만, 2018).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과 얻어진 시사점들을 결국 교수와 학생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수업에서의 행복, 탐구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갖는 건강한 지식,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으로서의 즐거운 학습, 학습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보람찬 성과 등 지식생태학의 주요 원리로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대학수업이란 강의평가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고객으로서의 학생의 입맛에만 맞춰진 수업 내용, 주문을 외듯 교수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루한 수업 방법, 열심히 배웠으나 결국 현장과는 동떨어진 학습 성과, 그로 인해 교수와 학생 모두 행복하지 못한 짜증나는 수업에서의 탈피를 지지한다. 지식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좋은 대학수업의 요소들을 비추어 본다면 현장의 맥락을 담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지식,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고 학습의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키는 즐거운 교수법과 학습법의 만남, 계량적 수치로서의 성과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끊임없는 협력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체득된 학습의 결과로서의 성과, 마지막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배움

대학에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의 장으로서 행복한 수업 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것이 곧 단편적이고 피상적 접근을 뛰어 넘는 진정한 '좋은' 대학수업이라 말할 수 있다.

K C I

## 참고문헌

- 강지혜, 이지연 (2018). 대학 교수자가 인지한 수업 문제상황 해결을 위한 플립드러닝 적용사례. *교육공학연구*, 34(2), 227-255.
- (Translated in English) Kang, J. H. & Lee, J. Y. (2018). Two adaptive flipped learning cases based on unique instructional problems perceived by college instructor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4(2), 227-255.
- 강창동 (2012).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83-107.
- (Translated in English) Kang, C. D. (2012). An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 for cultured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8(2), 83-107.
- 공선혜 (2016). 교육과정연구에서의 푸코방법론 적용과 그 가능성의 탐색. *교육과정연구*, 34(4), 197-221.
- (Translated in English) Kung, S. H. (2016). Understanding Foucault: A search for alternative approaches to curriculum studi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4), 197-221.
- 김광현, 조규락 (2016). 대학수업컨설팅을 위한 수업분석도구 개발. *한국교원교육연구*, 33(3), 27-62.
- (Translated in English) Kim, K. H. & Cho, K. L. (2016) Development of an instructional analysis tool for college clas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3(3), 27-62.
- 김용식 (2006). 대학의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구축방안: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18, 41-67.
- (Translated in English) Kim, Y. S. (2006). A Study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Strategy for Korea Vocational Colleges -With Emphasis o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18), 41-67
- 김운영, 정현미 (2017). 수업기본원리를 적용한 플립드 러닝의 설계 및 효과. *교육공학연구*, 33(2), 295-326.
- (Translated in English) Kim, Y. Y. & Chung, H. M. (2017). Design and effects of a flipped learning applying the first principles of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3(2), 295-326.
- 김재춘, 변효정 (2005). ‘좋은 수업’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수산해양교육연구*, 17(3), 373-382.
- (Translated in English) Kim, C. C. & Byeon, H. J. (2005). A critical analysis of the meaning

- of 'Good Instruction'. *The Korea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7(3), 373-382.
- 김희배 (2004). 대학 교수-학습지원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KRF-2003-042-B00013.
- (Translated in English) Kim, H. B. (2004). *(An) effective construction & management of instructional service system*. KRF-2003-042-B00013.
- 김희연 (2013). 유아교육에서의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2), 521-544.
- (Translated in English) Kim, H. Y. (2013).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integrative 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2), 521-544.
- 박민정 (2008).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다시 듣고 싶은 수업 에세이 분석. *인문학연구*, 75, 229-253.
- (Translated in English) Park, M. J. (2008). Students' perceptions of goo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An essay-review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75, 229-253.
- 박의수 (2006). 한국 대학교육의 본질적 문제와 개혁의 방향. *교육철학*, 35, 31-47.
- (Translated in English) Park, E. S. (2006). The essential problem and the directions of korea university education reform.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 31-47.
- 류수영 (2013). 경영수업에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사례연구. *교육공학연구*, 29(1), 103-131.
- (Translated in English) Ryu, S. Y. (2013). Case study: Problem-based learning in business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9(1), 103-131.
- 서경혜 (2004).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과 개념: 교사와 학생 면담 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165-187.
- (Translated in English) Seo, K. H. (2004). The perspectives and conceptions about good instructional practice: An interview study of teachers and student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2(4), 165-187.
- 서덕희 (2006). "교실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의 형성과 그 저항: 홈스쿨링에 관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1), 77-105.
- (Translated in English) Seo, D. H. (2006). The formation of Neo-liberal discourse on education after "Classroom Collapse", and resistance to it: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 Homeschooling reports in South Korea.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 16(1), 77-105.
- 송상호, 이지현, 박태정 (2016). 한국 대학교육 혁신에 있어 교육공학의 공헌 및 미래방향. *교육공학연구*, 32(4), 677-705.
- (Translated in English) Song, S. H., Lee, J. H. & Park, T. J. (2016). Educat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2(4), 677-705.
- 손승남 (2006). 좋은 수업의 조건: 교수론적 관점들. *교육사상연구*, 20, 115-134.
- (Translated in English) Son, S. N. (2006). Guter Unterricht aus allgemeindidaktischer Hinsich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Idea*, 20, 115-134.
- 신중호, 홍성연 (2013). 대학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에서의 동료평가 프로그램 도입 방안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0(1), 201-230.
- (Translated in English) Shin, J. H. & Hong, S. Y. (2013). Exploration of peer review of teaching program in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0(1), 201-230.
- 안지혜 (2014). 좋은 대학수업의 특성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사례 연구. *열린교육연구*, 22(1), 163-191.
- (Translated in English) Ahn, J. H. (2014). A qualit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good" college classes.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22(1), 163-191.
- 양영선, 허희옥 (2018). 인지·정서조절, 집단효능감, 스캐폴딩이 대학생의 프로젝트학습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34(2), 197-226.
- (Translated in English) Yang, Y. S. & Heo, H. O. (2018). Effects of cognition and emotion regulation, collective efficacy and scaffolding on learning outcome in undergraduates' project-bas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4(2), 197-226.
- 염민호, 김덕훈, 박현호, 김현정 (2008). 한국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과제와 방향. 전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연구보고.
- (Translated in English) Yeom, M. H., Kim, D. H., Park, H. H. & Kim, H. J. (2008). *The challenges and directions of the teaching-learning center*. Research Report of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유영만 (2018). 지식생태학: 생태학, 죽은 지식을 깨우다. 서울: 박영사.
- (Translated in English) You, Y. M. (2018). *Keology: Knowledge Ecology*. Seoul: Pakyoungsa.
- 유정아 (2009). 대학교원을 위한 교수법 증진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 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6(1), 343-367.
- (Translated in English) Yoo, J. A. (2009).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teaching improvement program of university faculty at C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1), 343-367.
- 윤소정 (2012). 다면적 접근을 통한 대학의 좋은 수업 특성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4(6), 963-976.
- (Translated in English) Yuen, S. J. (2012). Analysis of good college teaching characteristics by multi-faceted approach. *The Korea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4(6), 963-976.
- 이기호 (2006). 신문에 나타난 제7차 교육과정 담론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Translated in English) Lee, K. H. (2006). *Discourse analysis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roduced by daily newspaper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Doctoral thesis.
- 이상오 (2006). 대학의 본질과 대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일 고찰. *교육철학*, 35, 7-29.
- (Translated in English) Lee, S. O. (2006). A study on the nature of university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 7-29.
- 이용숙 (2011). '우수수업 상' 수상 교수의 수업 유형과 특성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방법연구*, 23(1), 175-211.
- (Translated in English) Lee, Y. S. (2011). An ethnographic study of typology and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college teaching by Best Teaching awarded professors.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3(1), 175-211.
- 이은택, 심규진, 유영만 (2017). 반성적 성찰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운영 사례 - 자기수업컨설팅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3(2), 483-515.
- (Translated in English) Lee, E. T., Shim, Q. J. & You, Y. M. (2017). Reflective practice for operation case of micro-teaching - Focused on the self-consultation of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3(2), 483-515.
- 이은화, 김희용 (2008). 좋은 대학수업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 대학생의 관점에서. *교육사상연구*, 22(1), 123-146.
- (Translated in English) Lee, E. H. & Kim, H. Y. (2008). Defining a "good instruction": The qualitative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Idea*, 22(1), 123-146.
- 이혜범, 양은배 (2013). 의과대학 우수 강의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 25(1),

47-53.

(Translated in English) Lee, H. B. & Yang, E. B. (2013) Original articl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lecturers in Medical School.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5(1), 47-53.

이희원, 강호선, 정연순, 허은녕 (2005). 대학 강의 질 개선을 위한 강의 평가 문항 분석: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8(4), 52-63.

(Translated in English) Lee, H. W., Kang, H. S., Jung, Y. S. & Heo, E. (2005). Analysis on evaluation inquiry of lectures for the improvement on university lecture quality: Focused on Liberal Art Courses of Engineering and Science Schools at SNU.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8(4), 52-63.

임상훈, 강수민, 이신우, 유영만 (2016). 대학생들은 플립드러닝수업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가?.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2(4), 777-803.

(Translated in English) Im, S. H., Kang, S. M., Lee, S. W. & Yeong-Mahn You (2016). A Qualitative Case Study of Flipped Learning Class o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2(4), 777-803.

임정훈 (2016). 대학교육에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탐색: 사례 연구. *교육공학연구*, 32(1), 165-199.

(Translated in English) Leem, J. H. (2016).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flipp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 case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2(1), 165-199.

장상호 (2005). *학문과 교육 중-1: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Jang, S. H. (2005). *Academic and Education Middle-1: What is Academic*.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장선영 (2017).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동료 수업컨설팅 사례연구. *교육공학연구*, 33(2), 455-482.

(Translated in English) Jang, S. Y. (2017). A case study on peer instructional consulting program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3(2), 455-482.

정은이 (2010).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교육방법연구*, 22(3), 25-44.

(Translated in English) Jeong, E. I. (2010). Perceptions by teachers and students of good teaching at college. *The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2(3), 25-44.

채수은, 손영민 (2015). 형성적 기능 중심의 대학 강의평가 공개를 위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1(1), 325-358.

- (Translated in English) Chae, S. E. & Son, Y. M. (2015). A study to establish an open course evaluation system of college for a formative purpos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1(1), 325-358.
- 최윤선 (2014). 비판적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Translated in English) Choi, Y. S. (2014).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eoul: Korean cultural history.
- 한국교육개발원 (2012).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좋은 강의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2012-05.
- (Translated in English) KEDI (2012). *Developing a good lecture model and finding a case for higher education quality*. KEDI Commissioned Research CR2012-05.
- 한국교육개발원 (2013).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13.
- (Translated in English) KEDI (2013).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quality in university (I)*. KEDI Research Report RR2013-13.
- Borich, G. D. (2000). *Effective teaching method* (4th ed.). NJ: Prentice Hall.
- Brophy, J. (1999). *Teaching, educational practices series-1*. ERIC No. ED 440066.
- Buskist, W., Sikorski, J., Buckley, T., & Saville, B. (2002). Elements of master teaching. In S. F. Davis, & W. Buskist (Eds.), *The teaching of psychology: Essays in honor of Wilbert J. McKeachie and Charles L. Brewer*, 27-40. Mahwah, NJ: Erlbaum.
- Fairclough, N. (1985). Critical and descriptive goals in discourse analysis. *Journal of Pragmatics*, 9, 739-763.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이원표 역 (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Johnson-Farmer, B, J., & Frenn, M. (2009). Teaching excellence: What great teachers teach u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5(5), 267-272.
- Lowman, J. (1995). *Mastering the techniques of teaching* (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eyer, H. (2004). *Was ist guter Unterricht?* Berlin: Cornelsen.
- Morgan, C., & Morris, G. (1999). *Good teaching and learning: Pupils and teachers speak*. Buckingham and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Ramsden, P. (1991). A performance indicator of teaching quality in higher education: The 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16(2), 129-150.
- Sheehan, E. P., & Duprey, T. (1999). Student evaluations of university teaching. *Journal of*

임상훈 · 유명만 (2018)

*Instructional Psychology*, 26, 188-193.

Zemelman, S., Daniels, H., & Hyde, A. (1998). *Best practice: New standard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America's schools* (2nd ed.). Portsmouth, NH: Heinemann.

Zimitat, C. (2006). First year student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good teaching: Not all things are equ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29, 386-392.

K C I

© 논문접수: 2018. 05. 10 / 1차 수정본 접수: 2018. 07. 27 / 게재승인: 2018. 12. 24